무신론적 현실감 속 하나님 증인

(이사야 43:1~28)

1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오늘 말씀 중심으로 <무신론적 현실감속 하나님 증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무신론적 현실감속 하나님 증인'
'무신론적 현실감'이란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히 배제한 현실감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무신론적 현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 들은 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로님께서 일을 하시다가 몸이 너무 피곤하셔서 찜질방에 가셨다고 합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따듯한 온돌방을 찾아 들어가셔서 금방 잠이 드셨답니다. 이제 푹 자고 일어나서 나와 보니 경찰이 와있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그러나 싶었는데 경찰이 장로님께로 오더랍니다. 그리고는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젊은 아가씨를 성추행했다고 하면서 조사를 합니다. 장로님은 이 말을 듣고 기절할 뻔 하셨답니다.
장로님은 잠만 잤다는 사실을 말했지만 이 아가씨는 계속해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이 들어와서 방을 보니 CCTV도 없고 증인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장로님은 몇 백만 원의 합의금을 내셔야 했다고 합니다.

증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전에서는 증인을 “법원이나 법관에 대해 자기가 과거에 견문(見聞)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삼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증인은 증언을 통해 과거의 범죄 현장을 법정에서 현실로 재현시키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현실’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현실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나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십니다.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이들의 호흡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없습니다.

증인이 없기에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실로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남북정상들의 목숨을 쥐고 계시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없기에, 언론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일체 배제한 채 보이는 것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현실로 재현하는 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은 죽었다고 합니다. 또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석학이나 철학자들도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자들의 망발에 변론으로 싸워왔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증인이 하나도 없는데 법리만 가지고 싸우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러나 변론이나 신의 증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증인이 필요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의 존재를 논리적인 사고의 틀에서 변론하고 증명하려 하고 이론적으로 따져서 싸움만 하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고 있다’라는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이 없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의 으름장을 현실로 받아들여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다윗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현실감과 사울의 현실감이 달랐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교리이고 지식이고 전통적 가르침이었을 뿐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언정 그 하나님을 현실로써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실 때에 조상들에게서 들어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현실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풍랑만난 배 위에서 잠을 주무셨던 것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대작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하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셨기에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현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천국이 현실이 되자 몸이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을 재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현실인식속의 핵심이 되셔야만 합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

도 사실입니다. 이 중에서 나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찾는 하나님은 현실이 되실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돈이 없는 것이 현실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음으로 어떤 사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현실은 결정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사실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마음으로 붙잡은 것만이 현실이 됩니다. 많은 사실들 중에서 돈 없는 사실, 몸이 병든 사실을 마음으로 먼저 붙잡으면 그것들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현실 속에 포함되지 못하고 밀려나고 맙니다. 그리고 현실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현실일 때에 믿음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선민입니다. 또 하나님이 배제되어진 현실인식에 충돌하며 사는 자들이 선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현실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자들이 선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단락별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드러내는 소재들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이 예언적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160년 후에나 있을 포로귀환 같은 경우에는 선민들에게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사야 당대의 선민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며 27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주제를 살펴보면 흐름이 아주 일목요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일등이 아니면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해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것을 지난 설교에서 '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습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놔두십니다. 다만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만 모시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해산하는 여인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듯이 하나님께서는 숨 가쁘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려는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무엇일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삶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8~13절까지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깨달아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현실로 재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현실감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현실감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선적으로 의식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현실감이 교리나 성경공부를 통해 배운 지식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나의 현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에 나가면 부장님도 있고 사장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께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현실로 삼아야만 합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사장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쥐고 계신다는 현실인식을 가진다면 사장님이 화를 내고 있어도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실인식을 가지기는커녕 하나님을 배제하는 현실인식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성도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증인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지금 뉴스에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떤 뉴스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내용의 현실인식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 사람들의 현실인식을 따르며 그들의 논리와 생각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오직 예배당에 와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현실감의 핵심으로 삼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재벌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재벌이라는 사실을 현실로 삼아 위세를 누립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나는 하나님이 조물주이신데도 불구하고 현실인식 속에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단순히 성경공부에서 배운 지식만이 사실 중의 하나로써 존재할 뿐, 어디까지나 나의 현실은 가난하고 병든 몸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조물주이시라는 것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시며 전능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현실이 될 때에는 몸에 병이 나도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의 과거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내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오류가 생겨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 총수의 재산이 자녀들에게는 현실이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탁월한 속성들이 나의 현실이 되면 삶은 달라집니다. 이 현실감이 우리에게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은 하고 있을지언정 그들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왜 하나님을 망상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현실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공부는 많이 해서 교리에는 밝은데 정말로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실로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실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병든 사람이 리처드 도킨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병을 허락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증거를 새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를 봐도 이렇게 하나님을 현실로 살아가는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기에 그는 ‘신은 망상일 뿐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에서는 앞서 보았던 부분에 이어 ‘포로귀환의 이야기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선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것은 아담 이후의 인류가 세상의 포로 된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에 포로가 될 때에 나타나는 증거는 갈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 크기로 지으셨습니다. 이 마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항상 채움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이 갈증이 인간의 모든 활동을 일으키는 의욕과 욕구가 됩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부터 모든 인간의 마음의 주입구는 세상을 향해 붙박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크기의 마음을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삶에는 타는 목마름이 항시 존재합니다.
다만 살아있을 때에는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지옥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타나듯이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지옥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지옥처럼 되는 이유는 하나님 크기의 마음의 공백을 세상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성경에서는 광야와 사막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포로 된 상태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해 마음의 주입구가 고정된 상태는 세상의 포로 된 상태입니다.

‘돈이 있어야 한다, 건강해야 한다, 오래 살아야 한다, 형통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갈증에 갈증을 더해 갑니다. 이 갈증이 세상의 포로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의 포로 된 상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갈증이 사라집니다.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만족과 기쁨이 생기면서 찬송이 나옵니다. ‘가졌으면 좋겠다, 이루었으면 좋겠다, 모았으면 좋겠다, 쌓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증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으로 인해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속성들은 나의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갈증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사용하려고 하면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리처드 도킨스가 말하는 대로 신은 망상일 뿐이고, 포이에르 바하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투사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 대한 갈증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하나님은 만들어진 종교의 신일뿐이지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현실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도 편히 주무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지면 세상을 향해서는 갈증이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나를 살려두시는 이유까지는 알지 못할지라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의 현실인식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은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재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의 욕구 대신에 하나님으로 배부를 수 있을까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먹으면 됩니다. 날마다 밥을 먹듯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먹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에서는 번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번제는 세상에 대해 갈증을 느끼는 나를 번제단에 드려진 어린 양과 동일시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만을 할 뿐인데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찬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갈증이 느껴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죽은 것으로 인정한다면 이유 없이 마음이 가볍고 좋아지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을 만나 대화를 하다보면 이 분이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의 일상생활과 목회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현실이 아닌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믿느냐고 노골적으로 물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상태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조용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병들어야 깨달을 수 있다면 병드는 것이 옳습니다. 일이 잘못되어야 깨달을 수 있다면 일은 잘못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라면 교인이 오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증인이 안 된 목사님의 교회에도 많은 교인들이 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인이 오지 않는 것이야 말로 최선입니다. 그럴 때에 돌이킬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목사님을 연예인처럼 생각하며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함으로써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갈증이 없어지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한 현실인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재현하는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